

## 한국 체류 외국인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최수형(崔水馨)

오늘날 삶의 질, 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 연구는 다른 범죄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 범죄학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며 서구와 아시아의 차이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아시아 지역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보인다.

21 세기의 중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는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아시아 국가, 아시아인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등의 증가로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문화·다인종화 가속현상을 보인다.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말 현재 2,416,503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 배 이상 많아졌고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9.2%), 태국(8.3%), 미국(6.9%), 우즈베키스탄(3.0%), 러시아(2.5%), 필리핀(2.3%) 등의 순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의 범죄 두려움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아시아 국가의 사람으로 이민자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적 변수로 인해 민족적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인과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인의 범죄 두려움 수준과 이를 구성하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이 동아시아계 외국인에 비해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범죄두려움의 형태별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계 외국인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이민자로서 아시아계 외국인의 사회적 경험과 반응에 따라 범죄두려움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회 통합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최수형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실태와 범죄 관련 인식을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승인통계명칭: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작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연쇄방화범죄, 청소년 강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등 국민안전 분야의 다양한 내용의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안전 분야 정책 및 제도마련에 힘쓰고 있다.

**Date & Time: October 29th (Tues.) 2019, 12:00-13:00**

**Place: Asia Square (3F), SNUAC (Bldg#101)**